

광역 지자체 최초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나서

전북자치도-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장애인복지 증진·고용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와 함께 장애인복지 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남기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회장, 염규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 협약을 통해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에 주력하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집중하고,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장애인 고용 문화 개선과 사회적 인식 향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장애인표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남기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회장, 염규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복지 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준사업장 활성화에 나섰다. 접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번 협약식을 통해 2024년 11

월에 개최되는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 등 사회적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

산품 소개 우수선구매제도 적극 참여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ESG 경영 활성화로 동반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더욱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35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이들 사업체는 골판지, 인쇄물, LED 조명, 김치, 제빵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북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0.93%를 달성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앞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가 더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살림 '한눈에'

도민 눈높이 맞춘 '2023회계연도 알기 쉬운 결산서' 발간

전북특별자치도는 복잡하고 방대한 결산서를 도민 누구나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간소화한 '2023회계연도 알기 쉬운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책자를 제작하여 26일 공개한다.

이번 결산서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결산 정보 제공을 목표로 제작되었다. 어려운 회계 용어를 친숙한 용어로 변경하고, 딱딱한 결산서의 숫자 나열보다는 도표 및 그래프를 활용하여 누구나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전북자치도는 2023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결산전문관을 지정·운영하여 재정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용액 최소화 등 매년 반복되는 결산 지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도민들이 결산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초청 누

리집에 '결산 관련 의견수렴' 코너를 신설하였다. 도민들은 이 코너를 통해 결산과 관련된 의견, 질문, 개선 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도는 이를 향후 재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회계연도 알기 쉬운 결산서'는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8월 말에 도내 공공도서관과 관공서 민원실에 비치될 예정이다. 또한 8월 26일부터 전북자치도청 홈페이지(정보공개 → 전북재정 → 세입/세출결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김종필 도 지차행정국장은 "이번 '알기 쉬운 결산서' 발간과 의견수렴 코너 개설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 'SWITCH'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총상금 4000만원 투자사·TIPS 운영사 추천·중견기업과 협력 기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테크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후스타트업 경진대회 'SWITCH(전환)'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북자치도가 특화된 기후테크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진행되며, 총상금 4,000만 원과 함께 투자사 및 TIPS 운영사 추천, 대중견 기업과의 협력 기회 등이 제공된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시장이 9조 달러(1경 2,0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막대한 사업 기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성장 트랙과 신규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창업 이후 기업가치 100억 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은 성장 트랙으로, 창업 5년 이내이면서 기업가치 100억 원 이하인 기업은 신규 트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성장 트랙에 지원한 기업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군산에서 열리는 프라이빗 네트워킹 행사에 초대되며, 대 중견기업 임직원 및 기후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교류할 기회를 갖게 된다. 입상 기업에게는 총상금 1,800만 원과 함께 전북도 이점을 위한 기업유치 우대 검토, 투자사 IR 등이 제공된다.

또한, 신규 트랙 입상 기업에게는 총상금 2,200만 원과 함께 소풍벤처스 직접투자(5억 원 이내), IR 코칭, TIPS

프로그램 추천, 기업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소풍벤처스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성장 트랙 신청은 8월 30일까지, 신규 트랙 신청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SWITCH 공식 홈페이지(<http://switchj.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 변화는 인터넷 혁명과 같은 대규모 산업 전환을 불러오고 있다"며, "전북자치도가 강점을 가진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전환에 선두 주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관리 추진상황 점검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현장 의견 청취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26일 전주 대방디엠시티를 방문해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의 화재 안전시설 시범사업 등을 점검했다.

지하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안전시설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 개성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 10조의 2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안전시설의 구체적 종류, 범위,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도내 공동주택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층에 설치된 충전 구역에 방화구획(격벽)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또는 교체하는 사업이다.

최 부지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지하 충전 구역 화재 안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결과 △지하 주차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점검 △관리소장 등 관계인으로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안전 관리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하 충전 구역 화재 안전시설"은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로, 소방본부와 협업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자발적으로 지하층 충전 구역에 방화벽, 질식 소화포,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을 설치한 것이며,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예정인 화재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기준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전기차 화재시 초기대응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등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지하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이 전기차 화재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도내 전기차 화재는 총 9건으로 이 가운데 1건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42,388천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만호 기자

김진상 전 KIST 전북분원장에 명예도민증 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김진상 전 KIST 전북분원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진상 전 분원장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KIST 전북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연구소의 우수 인적자원과 연구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 개발 사업을 발굴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사업

육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를 통해 전북 지역 경제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도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김 전 분원장은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협약'과 '혁신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 선정', '딩키텍 사업', '지역 산학연 파트너십 프로그램', '기술 주치의 제도 운영'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이러한 활동들은 도내 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줬으며, 전북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 주체들의 협력을 강화해 산학연 협력 시스템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상 전 분원장은 현재 서울 KIST 본원으로 이임한 뒤에도, 전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지속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 발전에 많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드리는 평생 선물로 김진상 분원장님이 도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과 도민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장수군 공고 제2024-8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 ~ 2030.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도로 명칭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백운~천천(1단계)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방도 제726호선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일원	• 연장 : 2.5km • 폭원 : 9.0m (확포2차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환산구 호자로 2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및 면적

• 지방도726호선 중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2.5km) 구간으로 지방도 단선구간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관광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함.

3.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면도

• 계획 생략(열람장소 비치)

4. 열람 및 의견서(이의신청) 제출

- 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15일간
- 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의견제출(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 · 제출(열람장소 의견서 비치)
- 기타 문의사항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63-350-2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주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 공고를 갈음함.

2024년 8월 14일 장수군 수